

# 고등무용교육 재구조화를 위한 반성적 과제와 전략

신 은 경\*

## 목 차

Abstract

I. 서론

II. 고등무용교육의 진단과 문제제기

1. 무용교육과정의 형평성

2. 무용교육의 포괄성

III. 새로운 변화를 위한 반성적 대안

1. 무용교육과정의 통합적 사고

2. 무용교육 관련 직업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3. 대학원에서의 무용교육 학습 강화

4. 무용교육연구의 질적, 양적 확대

5. 거버넌스의 기능과 책임

IV.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 The matters and strategy through reflective thinking for reform of higher dance education

Shin, Eun-kyung ·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ies is a dance education to refer to the K-12 school and private studio age group, as well as higher education teacher preparation programs for these populations. This distinction is important to make at the outset to understand the expansion and relevance of dance education curricula for professional degree programs at the undergraduate and graduate levels in this work. Four primary challenges are investigated in this article: curricular equity, expansive dance education programs, graduate study opportunities, governance leadership. Research in Dance Education project recommends. The results of the studies on:

The political negotiations and complex interplay of developing professional degree programs while simultaneously attempting to nurture and sustain liberal arts and dance education programs.

\*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교수

논문투고일: 2013. 1. 20. 심사일: 2013. 2. 20. 게재확정일: 2013. 3. 8.

Within this curricular negotiation, an “either/or” approach to decision making often surfaces in which dance unit priorities are determined in fragmented ways.

Colleges and universities provide opportunities for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to study and be engaged in basic research and its designs. Dance education researchers work cooperatively to establish clearer definitions concerning research methodologies, techniques, and essential research characteristics. “Think tank” sessions should be conducted in which research terms and methodologies are discussed and clarified. Dance specialists research the processes of creating, choreographing, performing, and analyzing dance so educators, artists, and administrators in dance, arts, research, and education communities better understand different components of these processes.

Dance educators from diverse environments at the community level consider combining resources to pursue research endeavors. Research be conducted on policy and funding in Korea. Education issues, categorized more broadly as pedagogy and the examines learning patterns and preferences of the diverse populations of children in Korean schools.

Finally, The every dance education organization urges the governance to heed this call for the good of future generations involved in all aspects of teaching and learning. Further, it is urged that both public and private funds support research in these domains for the good of the governance, and our children.

**key words:** higher dance education, dance department, dance curriculum, dance education research

**주요어:** 고등무용교육, 대학무용(학)과, 무용교육과정, 무용교육연구

## I . 서론

세계화 시대 도래와 함께 고등교육은 국가적, 개인적 자산으로서 지식을 공급하는 엔진이며 사회적 정의의 실현과 사회 구성원 간의 기회 확대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그들의 지식과 기능을 필요로 하는 사회의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도록 배출된다. 그리고 대학의 몫은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일 것이다. 대학은 연구역량을 증대하여 강의와 연구를 개선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공동연구와 학제 간 연구결과들을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199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은 자원의 제약과 시장의 요구 증대, 그리고 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고등교육 시스템 및 기관의 재구조화를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진행하고 있다(김안나, 2004:61). 고학력화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대학의 특성화 및 다양성 부족과 전공별, 지역별 우수학생 분포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어 왔다.

렉메이어(Reckmeyer, 1990)는 대학교육은 과거의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전통적인 교육을 넘어서서 지식과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즉 총체적인 문화 창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재조직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대학 무용교육은 무용예술의 본질과 사명을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시장 논리를 좇을 것인가를 사이에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 시대 무용예술의 실천은 새로운 무용의 탄생이라는 이름하에 누군가에게 치하될 수 있겠지만, 문화예술시대 무용교육의 정상화가 어떻게 가능할까는 질문에 대한 답은 대학 무용교육이 찾고 실현해 나아가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대학 무용교육의 변화를 위해서는 사명을 지향하면서 시장화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mission-centered and market-smart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Zemsky, 2004:51-68).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의 위기에 처해있는 대학의 무용(학)과는 경쟁력과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을 만들어 진보적 가치를 실현해 나아가려 고민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문제를 다시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자유와 도덕이라는 진보의 가치에 맞게 변형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재구조화하고 그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상상력, 창의력,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예술교육을 위해 고등무용교육은 학계의 역사에 있어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1930년대 여성들의 신체교육 프로그램으로부터 등장한 무용은 1990년을 지나면서 새로운 목표설정과 꾸준한 성장을 통해서 넓은 의미로는 예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예술기반의 교육으로 재편성된 것이 특징이다(Doug Risner, 2010). 그렇지만 1963년 이화여대 무용과가 최초로 설립되어 현 43개 대학에 무용(학)과가 생긴 이래 지난 50여 년간 이루어진 개발과 노력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들에 대한 진실성과 안정성에 위기를 맞고 있다. Penelope Hanstein(1986)은 무용의 후기 현대 교육과정의 특징을 역사적, 문화적 전망, 통찰력 있는 비평의 기교, 예술형식으로서의 무용의 본질에 대한 해답, 예술적 개념의 인식과 탐구·변형·구별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여전히 무용교육은 극장 예술로서의 성향을 두드러지게 반영하는 가운데, 학생들을 실기전문 인력으로 준비시키는 것과 자유주의 예술교육 안에서의 방대한 훈련을 제공하려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고등무용교육의 수월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무용교육과정의 자율성과 제도변경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따른 노력과 함께 재정적 지원을 증대하고, 나아가 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일자리 및 자산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는 대학 무용교육의 이러한 문제제기에 답하기 위해 현실에 대한 비판과 반성적 대안을 살펴봄으로서 오늘날 대학무용(학)과의 변화와 진보를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무용교육자들과 행정가들이 무용예술이라는 전통적 맥락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자유롭게 숙고하여 현재의 한

계를 넘어 적절하면서도 공감 가는 무용교육의 실천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이를 구체화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Ⅱ . 고등무용교육의 진단과 문제제기

커다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고등교육은 그동안 양적 팽창 위주로 치달아 왔던 정책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이제는 양질의 전문 인력 공급과 수월성을 추구하는 대학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절정에 달해있다. 여기에 대학의 무용(학)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 고등무용교육은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볼 때, 그 모델을 체육으로부터 무용의 존재론적 가치와 위상을 되찾으며 무용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체제의 내실화 및 현실화를 확고히 갖추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최근 학생들의 전공과 진로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다양해지고 무용학 분야의 발전도 더욱 세분화·전문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과 존립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의 무용 전공 학생들이 처음에 가졌던 열망, 꾸준한 성장을 위한 학업, 다양한 진로를 발견하기 위해 따라간 궤적은 과거와 별다를 바 없이 거의 같은 문제점들에 국면 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각 대학들은 많은 갈등과 난점을 안고 구조조정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소속대학 또는 학과 명칭을 변경하고 있지만 무용(학)과의 체제상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이제 우리는 문화예술시대의 흐름에 맞는 소속 변경, 무용예술로서 발전정책 구축, 예술교육의 목표 지향 및 무용(학)과의 정체성 확보, 특성화 및 브랜드 강화, 관련 예술분야와의 학문교류와 국제교류의 확대, 통합적 양상의 특화 프로그램 개발, 전문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지 마련, 학문적 융합과 연계성 강화, 우수학생 유치 등 전문화된 교육의 장으로서 예술적·학문적 발전을 이루기 전략 등 시급한 필수적인 사안들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진지하게 바라보며 심각하게 이를 검토해야할 것이다.

### 1. 무용교육과정의 형평성

근래에 이르러 국내외적으로 무용(학)과는 체육대학에서 예술대학 내로 소속을 이행하고, 학생들의 요구와 실제적인 진로지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전공 개설에 관심을 갖고 이를 실천하기에 이르렀다. 고등무용교육의 이미지는 무용공연, 무용교육, 무용이론 등의

영역에서 빠르게 확산되어가며 무용예술가, 무용교육자, 무용학자 등을 통해 새로운 변모를 꾀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대학 무용(학)과가 세계적 수준의 전문 인력 및 지도자를 배출하여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세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전략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고등무용교육은 과거의 무용실기와 경험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틀을 넘어서서 지식과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즉 총체적인 문화 창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재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고등무용교육이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은 국내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이다. 따라서 교육의 고객인 학생들이 해외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무용교육과정 체제 정비와 무용교육 패러다임 구축으로 미래 지향적인 고등무용교육의 실천을 이루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신은경, 2006:55).

그동안 무용학사(BFA)의 전문성은 무용분야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넘쳐나는 인력자원과 힘든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대학의 무용(학)과는 어떤 교육과정, 프로그램, 교수진을 갖추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동시에 K-12 무용교육에 대한 정의와 가치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나치게 전문화된 무용학사의 환경으로부터 더 많은 무용관련 직종으로 학생들의 진로를 연결하는 것에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 주체가 되는 학생들은 명시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 등 교육과정의 근본적인 문제들과 관계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시대의 교수-학습, 교육학, 지역사회와의 소통, 문화적 이해와 같은 현 시대적 요구에 관심을 둔 무용교육의 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무용(학)과 졸업생들의 사회적 참여 기회와 범위를 한정시키는 장애요소와 무용분야의 생존, 성장, 연구, 지도력에 가중되는 제한 요인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무용교육과정 불평등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BFA 전문화 강조가 낳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직시해보아야 한다. 전통적으로 무용교육과정은 대개 실기과목과 이론으로 양분되어지는데 이들 사이에는 공통되는 부분이 별로 없고 심지어는 대립적 관계에 놓여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이원성은 교수와 학생들에게 커다란 해를 끼치고 있다. 그러나 지식과 정보 창출의 기능이 강조되고, 이론과 실체가 조화된 무용교육과정을 요구하는 후기 현대적 패러다임의 총체적, 다원적 접근은 전체적인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에 대한 조화롭고 상호적인 접근방식을 요구한다(신은경, 2004:119). 그리하여 수십 여 년 간 순수예술을 추구하던 대학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무용(학)과 특성화를 위해 새롭게 재구조화된 형태로 등장되고 있다. 그동안 BFA학위를 위해 기울인 의도된 노력들은 무용을 행위예술의 형태로만 과장하여 강조하는 결과를 만들었고, 여기에는 교양무용과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희생이 따랐다. 무용의 전문화는 음악, 미술, 연극과 같이 무

용을 고등교육에서 독립된 예술 개체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렬한 헌신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다. 대학의 BFA과정을 통한 전문화가 중요한 것은 확실하지만 이로 인해 교양 무용과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희생시키는 것은 무용이 우리의 삶과 문화를 더욱 확충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된다.

그동안 고등교육에서 BFA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고 유지하는 것에 일차적 초점을 맞춘 것이 무용교육 프로그램, 교사양성 프로그램, 교수 임용 등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현실 하에서의 행정적 결정은 무용학위 프로그램의 형평성을 잃게 한 원인이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고등교육을 마친 무용전공생들의 진로 및 사회적 참여기회를 제한하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 시대에서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든다. 그 이유는 무용 프로그램의 초점이 BFA 교육과정에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전문무용수나 전문직업인으로 도전할 수 없다는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 그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이 무용교사로서 학교, 개인스튜디오,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에서 또는 무용기술, 프로덕션, 행정 등의 영역 내에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며 직업으로서의 경력을 일구어 나가고 있다. 따라서 보다 포괄적 방법으로 무용교육을 제고하여 넓은 의미에서의 무용교육 정책, 무용교육과정, 무용학위 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에 영향을 끼칠만한 제도와 그 가능성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에서 무용교사 양성 프로그램은 음악교육이나 미술교육과는 다르게 아직 불모지로 남아있다. 무용(학)과 학생의 수와 교수진의 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무용은 다른 예술학문에 비해 상당히 왜소화되어 있다. 이것은 무용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 중에 무용교육을 전공하는 교수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교수들의 “예술가 대 교육자”라는 이진법적 사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진법은 무용 공연과 안무/연출에는 특권을 주고 가르침, 교육학, 지역사회 무용에 헌신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기분이 들게 한다(Risner 2007:17-23). 이러한 무용교육에 대한 담론의 영향은 교수, 자원, 공간 사용, 재정의 우선권 등 중요한 행정적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만연해 있고 무용교육자들의 연구에 대한 신뢰, 자금지원 등의 문제에 있어서 현저하게 드러난다. 예술가 대 교육자라는 이진법의 구도에서의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경쟁은 심각하다. 한 예로서 BFA가 요구하는 집중적 전문화 즉, 공연예술에 종사하는 교수들을 지원하는 기관과 기업의 사고방식은 대체로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인력양성에 필요한 지원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고등무용교육에서 이런 편화된 입지를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가 하나의 과제이다.

## 2. 무용교육의 포괄성

고등교육에 있어 현 무용교육과정 내의 교과목 배치 형태를 학부생의 이익과 관리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명확하게 알고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용(학)과 교수들은 학부 교육과정에서 무용교육 관련 교과를 확대하는 작업과 그것의 실현 가능성 및 연관성을 수립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1) 무용교육학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의 확대

교양 무용수업과 무용교육에 대한 제한적인 시각과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 학장, 학생, 예비 수험생, 학부모에 이르는 중요한 이해 당사자들에게조차 이런 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이나 실용성에 대한 인식은 애매모호한 채로 남아있다. 다음의 예시 즉, 예비 수험생의 부모가 “내 딸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애는 BFA 프로그램을 위한 오디션만 봐요.”라든가 혹은 대학의 교과과정 위원회가 “K-12 무용교사들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당신들의 요구를 고려해보지 않겠소.” 또는 한 BFA 과정의 대학생이 “왜 제가 무용교수과정을 들어야만 하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무용실기 수업만 했는데요.” 등의 사고들은 대학무용(학)과 내에서 무용교육학의 우선순위와 행정적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Risner, 2010:98).

특히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 젊은 인재들의 취업난을 해소하려면 먼저 무용예술가와 무용교육자들 간의 긴밀한 교육적 관계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무용테크닉과 공연에 특권을 주는 “예술가 대 교육가” 담론은 대중의 마음을 지배해왔지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무용수들도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것 이외에 자신의 학생들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대학의 교육과정, 학위 요구조건 등에 무용교수법과 교육학의 중요성을 분명히 반영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BFA 학위 프로그램을 수여하는 대학이라 할지라도 K-12 무용교사양성 프로그램을 갖춘 무용(학)과의 입학시험 제도와 학위 명칭은 교육부로부터 이에 적합한 승인과 관심을 전폭적으로 받으며 학과의 체제 및 무용교육과정의 유용성을 확장하여야 한다. 무용교육학은 무용연구와 함께 생활 속의 무용living dance, 무용보, 해부학, 신체 운동학, 무용창작, 무용철학, 무용민족학, 무용음악 등과 같은 과목에 대한 실행적인 지침 안에서 최소한 논의되어야 하고, 이러한 지침은 교사양성 프로그램의 기술, 공연, 안무과정에 질적, 긍정적 측면의 향상을 가져오며, 학교교육 또는 지역사회 교육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이바지 할 것이다.

## 2) 사설학원 무용교육의 확대

역사적으로 대학에서의 무용교육과 사설학원private studio간 관계성은 빈번히 단절된 상태로 묘사되어 왔다(Cohen, 2002:50-51). 해구드(Hagood, 2000)는 일찍이 학계에서는 무용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창의적이고 교육적 가치와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사설학원의 무용프로그램은 상업성과 시장 수요에 영향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최근까지도 고등무용교육계는 민간부문의 무용교육 경영체계를 인정하거나 언급하기를 꺼려하거나, 여기서 하는 무용교육을 다소 폄하하는 경향이 있기도 했다. 그렇지만 사설학원 교수법의 발전과 확대하는 일에 대학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무용교육 성장의 잠재력,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보다 큰 문화적 결합과 소통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사설학원의 교사들은 민간무용단체로서의 사업목적, 학부모들의 기대치, 무용의상과 음악 선택, 아동 발달에 대한 연구, 연령별에 따른 운동 및 안무의 주제 등을 고려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보통 이러한 상황에 있어 교사들은 그들의 책무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고등교육의 학위과정에서 개발하지 못한 채 스스로 배우거나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며, 교사로서의 권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더 부담스러워진다. 경쟁적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들의 현실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만족을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구매자 중심의 시장 틀 안에서 교사들은 자신의 예술적 선택과 교육적 진실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일을 해야만 한다. 이런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용(학)과 교육과정에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것은, 무용교육에 있어서의 공유된 목표와 상호간의 우려에 대해 좀 더 응집된 이해력을 발전시키도록 이끌 것이다.

## 3) 지역사회 무용교육의 확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무용과 무용교육은 지역사회와 중요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고 무용단체들은 지역공동체의 지원에 많은 부분 의존한다. 국가와 기업 차원의 기금들이 예술자금 지원이라는 강력한 사회적 서비스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사회 무용 즉, “커뮤니티 댄스”라는 용어는 1970년대 영국이나 호주와 같은 나라들에서 생겨난 프로그램들로서 21C에는 특별히 지역사회 무용운동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청소년 프로젝트, 그 밖에 지역사회를 지지하는 서비스에 목적을 둔 무용기반프로그램을 활발하게 발전시키고 전달하는 일은(Eddy, 2009; Green, 2000; Houston, 2005), 무용이 자신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참가자들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사회통합을 도모한다.

지역사회와 협업하는 전문무용 예술가들은 지역사회에서 그룹을 형성하며 중요한 역



할을 감당하고 있다. 하지만 보통 사회통합이나 문화소의 사람들을 위한다기보다는 이윤 창출과 젊은 인재 등용에 방향이 쏠려있긴 하다. 지역사회무용의 목적, 임무, 교육적 봉사, 지원활동의 수행이 무용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사회 무용을 위한 교육과정을 갖춘 학과의 제도는 자격증 프로그램, 특별과정 등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실시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지역사회 무용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능한 인력 즉, 고등교육에서 핵심기술, 지식, 무용교육과정, 무용교수방법의 이해 등을 골고루 배양한 전문가가 양성되어야 한다. 이런 사회적, 교육적으로 긴요한 사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른 그룹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작업, 교육과 공동체적 배경을 둔 무용프로그램, 특별 프로젝트 계획, 무용을 통한 소통과 나눔, 직업을 기반으로 한 학습, 무용경영, 지역사회 무용과 연관된 역사적·상황적인 연구(목적, 장소, 정체성)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1세기에 필수적이고 적절한 무용교육은 교육과정의 실행과 이를 연구함에 있어 사설학원과 학교 및 지역사회 무용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즉, 사설학원에서의 훈련 그리고 무용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향유 등의 쟁점들은 고등교육 학위 프로그램과 연관성을 갖고 특별히 초점을 맞추며 생산적인 관계를 가지는 가운데, 모든 학생 무용가-교사들에게 지역사회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신체적, 정서적, 공동체적 건강의 중심에 무용교육이 있어야 함을 명확히 알도록 다루어야 할 것이다.

### III. 새로운 변화를 위한 반성적 대안

번바움(Birnbaum, 1983)은 고등교육의 다양화는 교육의 형태나 종류, 프로그램과 기능이 여러 가지로 분화되는 것이라 설명하며, 이것은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대학의 효율성과 수월성 그리고 모범사례를 제고 해주며 더 나아가 학문의 자유를 보호해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은 고등교육의 자율경쟁체제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고 특성화를 위한 전략이 된다. 각 대학 무용(학)과는 발전목표와 전략을 존중하고 자율화를 증진하며 공적 책임의 기능을 새롭게 창출할 필요가 있다. 고등무용교육은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필요, 무용 학위 프로그램 이외 그 너머에 있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 지지층을 확고히 하고 더 많은 지원의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이미 당면하고 있거나 해결해야 할 장애요소가 있다면 빠르고 쉬운 해결책을 알아낼 방도와 추진방법이나 전략들을 세워야

한다. 반성적 사고를 통해 현재 고등무용교육의 현 위치와 새로이 계획된 전략들이 미칠 사회적 영향과 반향을 그려보며 연속성 있게 탐구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 최선의 반성적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희구하는 고등무용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해 경험을 재 조성, 재구조화하고 성장 방향을 위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은 그 목적, 내용, 방법 면에서는 물론 교육적 결과들 인정하고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국제적 경험과 외국어 능력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고 직업적 지식과 기술의 통용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제도의 도입이 요구되는 등이 각 대학의 무용(학)과의 자극 요인이 되고 있다. 사회는 대학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요구함으로써 졸업생들은 그들의 이러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도록 배출되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사회 환경과 밀접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는 개방체제로서 존재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제 대학은 한 국가 내에서의 개방된 체제로서가 아니라 국가 간 교류를 통해 교수, 학생, 교육프로그램, 시설, 설비에 이르기까지 교류의 범위와 깊이를 넓혀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변화에 민감한 반응으로서 다음의 사안들을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Risner, 2010:106-107).

## 1. 무용교육과정의 통합적 사고

그간 순수예술을 전공한 학생들에게 수여되는 학부(BFA)와 대학원(MFA) 학위 취득수의 급증은 고등교육의 무용 학위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황금률로 떠올랐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무용의 전문성을 오로지 테크닉의 기술, 공연, 안무의 탁월함이라는 관점으로 제한시키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비전공 학생들에 대한 예술교육의 기회와 가능성을 간과하는 결과를 낳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무용교육 관련 직종을 위한 학습과정의 의미와 중요성을 과소평가한다던가. 무용수의 예술적 산물에만 너무 과대평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즉, 무용(학)과 교육과정의 포괄성 및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전문 학위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교양 예술과정과 다양한 무용프로그램을 육성하고 유지시켜야 한다. 즉, 교육과정 정책자들의 결정에서 우선순위 또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상호 연관된 전체 유닛을 고려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교육과정을 위해 “해체”로부터 “둘 다”로 옮겨갈 통일된 사고를 가져야 할 것이다(Risner, 2010:108).

이 전략은 공연 중심의 전문 학위 프로그램에 초점을 둔 교육 행정가들에 매우 강하게 부각되어 질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논쟁거리는 아마도 무용교육이 어떻게

BFA와 MFA 학생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건지 그 당위성과 합리성을 설명하는 일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근본적으로 공연중심의 전문 학위 프로그램이 성공해야 할 필요성 주장하며 무용교육과정을 재구성할 것을 제시한다. 즉 예술적 향상을 위한 실기연습, 즉흥/안무법, 워크숍 및 공연 등에다가 무용교수법과 교육학을 강조하여 졸업 이후의 직업준비와 MFA과정의 질적 발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러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은 학교교육 뿐 아니라 사설학원, 지역사회의 무용교육을 위한 강사 및 인재 배출을 대체로 MFA 학위과정에서 준비시키기 때문에, 대학원 교육과정에는 교수법 관련된 교과목 개설을 확장시키고 그 중요성을 지지해야 한다.

전문무용수 및 안무분야에서 직업을 찾는 MFA 졸업생들은 심중팔구 공연단체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더불어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예술가”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예술가 대 교육자라는 양분법의 한계를 제고하고 이를 넘어 선 가시적 현상 및 효과라고 볼 수 있다. 가르치는 예술가는 상호보완적 기술과 예술을 통한 배움의 경험 혹은 예술에 관한 배움의 경험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교육자의 감성을 지닌다. 가르치는 예술가에 필수적인 세 가지 기본적인 역량은 자신의 예술 형태의 이해, 교육학 및 인간발달과 수업환경의 이해, 학교 내에서의 공동작업 이해이다(Daichendt, 2009:33-38).

BFA 학생들에게 있어 유사한 논쟁거리는 어느 대학을 막론하고 ‘실용적인 것’일 것이다. 이미 많은 학생 또는 졸업생들이 사설학원이나 지역사회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학, 교수방법론, 창작무용, 특수무용 등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서의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학부생들은 교수법, 교육학, 문화 인식, 지역사회 등에 대해 훨씬 더 배울 것이 많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왜 BFA와 MFA 프로그램에 있어 건설하고 실용성 있는 무용교육과정이 필요한지, 또한 그것을 통해 학생들이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무용(학)과 교수들은 제도적 상황에서 이런 연관성을 분명히 알고, 전문 프로그램과 무용교육과정 사이에 상호 이익 관계를 옹호해야 할 것이다.

## 2. 무용교육 관련 직업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학생과 사회, 무용학분야의 시대적 흐름 및 요구를 반영하여 무용전공영역을 개설하고 전공특성에 따른 교육목표, 교과편성, 강조점 및 기대효과, 구체적인 진로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특히 K-12 교사양성과 자격증을 필수적 요소로 포함시키는 포괄적, 전문적 교육

과정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무용교육”의 개념적 확장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교양교육으로서 무용이 타 전공 학위학생들에게 확대 제공되도록 그 체계를 만드는 것이고, 여러 분야에서(사설학원, 지역사회, 봉사활동, 대체 환경) 가르치는 교수-학습활동과 무용관련 직업들(관리행정, 무용기획, 무용과학 및 기술)을 포함해야 한다. 한 예로서 부전공 제도로 교양예술 학사학위과정을 설치하는 것은 BFA의 수준 및 자격에 미치지 못할지도 모르나 다른 진로 준비 및 직업 기회 때문에 선택했을지도 모를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용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전공생들을 위해 확대 개편된 무용교육의 심화과정은 무용교육 분야(학교, 사설학원)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용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문화적 연관성과 공동체와의 공감을 조성하는 것이 될 것이며 비록 이 두 분야의 프로그램 계획을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과 접근법을 취할 수 있다고 해도, 다음의 몇 가지 중심적인 목표와 구성요소는 동일할 수 있을 것이다(Risne, 2010:106-108).

- 전통적 기교와 공연훈련을 위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적절하고 포괄적인 무용교양 과목 연구하기
- 변화하는 사회적 및 전 지구적 문제점을 조사하고 무용교육과 직업적 맥락에서 다양한 진로를 준비할 경험적 기회의 제공과 무용연구, 지역사회와 문화연구를 위한 통합 프로그램 제공하기
- 삶과 사회적 상황을 질적, 창의적, 혁신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실험적 탐구 및 실습을 포함한 무용 강좌들을 개발하여 무용교육과 연관된 직업준비를 위한 기회 제공하기
- 교육 및 민간 사업부문에서의 무용, 행정관리 및 정책, 프로덕션 및 기획, 테크놀로지, 무용과학 및 치료, 지역사회와 대체 환경에서의 무용 등을 위한 무용교육 학위 (Ed. B, Ed. M, Ed. D 등)과정 체제 마련하기
- K-12교육, 고등교육, 사설학원, 공연예술단체 및 조직을 위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outreach program, 그리고 구청 및 시민 문화회관과 문화센터 환경에서의 교사준비와 전문성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하기

### 3. 대학원에서의 무용교육 학습 강화

고등교육에서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은 자기 전공과 관련된 기초연구와 설계를 위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특히 대학원생들은 연구의 실질적, 이론적 이해뿐만 아니라 그들

의 교육적 경험의 장까지도 필요하다. 그럼으로 다양한 연구방법과 기술 그리고 양적에서부터 질적 연구까지를 포용하는 연구특성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미래 전문인을 양성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무용(예술, 교육, 이론)연구의 기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통합의 중요성과 연구의 잠재성을 보다 더 이해하며, 연구 설계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열정을 자극하여 독창적, 혁신적인 방법의 연구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

- 다양한 환경(K-12 교육, 사설학원, 공연예술조직, 문화센터)에서 가르치는 무용전문가들은 지역사회와 대학과의 동반관계를 위해 그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장려한다. 마찬가지로 대학들은 다양한 환경의 지역 무용 전문가들을 위한 정기적인 계획을 세워 전문적인 서비스 기회와 네트워크를 통한 평가, 지원 등을 제공한다.
- 무용교사자격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대학은 K-12 무용교육자의 훈련을 위한 교육 연구 필요성의 이해, 다양한 현장연구 설계의 종류와 범위의 인식, 실습실로서의 무용실에 어떻게 참여하며 배우는지, 무용 교수-학습의 연구를 발전, 확장시키고자 하는 주인의 의식을 갖는다.

이를 위해 대학은 대학원생들의 무용교육 학업을 위한 현지 또는 타 지역의 기관을 파악하고 어떤 주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석사학생들의 수업을 받을 것인가를 고려한다. 그리고 대학원생이 갖추고 있는 전문성의 수준과 질을 검토하고 실기연습, 안무, 공연, 중요한 교직 준비, 교육학, 문화적 공동체적 결합 등 무용프로그램을 위한 추진력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며 가르치는 예술가 교과과정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원격수업, 타 대학원 프로그램과 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교과과정의 가능성을 분석하고 혁신적 실행 및 새로운 교과과정 디자인을 위해 타 대학원 교수진과 학생들 간의 파트너 링 기회를 탐색할 수 있다.

#### 4. 무용교육연구의 질적, 양적 확대

현재까지의 무용교육 연구들을 통해 발견된 형태, 동향, 차이점, 결여분야에 관한 연구를 해야 한다. 무용교육 연구자는 연구방법과 기술, 연구특성에 관하여 명확한 의미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여 작업한다. 정책결정에 있어서 문제의 해결책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또 이들을 비교·평가하는 중요한 지적·분석적 작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나 지식인으로서의 지식제공자 즉, “두뇌 집단think tank”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간, 연구조건, 방법론을 논의하고 명확히 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간은 전문용어와 개념이 동시

대적으로 정기적으로 보전되어야 하고 다른 예술, 연구, 교육 사회와 관련하여 무용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연구의 방향을 제공해야 한다.

무용 연구자는 엄격한 연구방법으로 훈련하여 이러한 연구의 노력이 무용을 통해 학습하는 분야, 교육 및 관리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연구 방법의 접근은 무용의 예술적이고 교육적인 경험 전체를 탐구하고 소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예술경험을 일화적, 기술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다른 연구 분야에서는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다. 연구비 및 지원금 신청을 받기 위한 프로젝트들은 임의의 샘플을 참고로 실험적 방법과 최종 보고서를 포함하는 기본 평가 결과물을 생산해야 한다. 그러나 무용학문이 정보력과 경쟁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양적, 질적 연구방법과 기술을 지원하는 연구 설계의 다양성을 실행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용(학)과 대학원생들은 기초통계작업에 따른 보고서와 비평적 해석을 위해 통계정보 및 용어를 알아야 하고 어떻게 이러한 정보들이 다양한 교육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아울러 무용교육의 가치 연구와 무용학습의 영향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높은 사고력과 이해의 과정에 숙달되어야 하고 무용의 예술적인 과정(창작, 공연, 감상)을 조사하여 이러한 정보가 교육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무용교육의 초점은 예술경험의 질이다. 본질이 되는 예술의 과정 연구와 무용교육의 결과물은 정서적인 측면과 학술적인 면의 연구를 포함한다. 그리하여 무용전문가들이 무용, 예술, 연구, 교육 공동체 등의 연구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며 연구의 계획과 실행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무용연구 팀과 신경학/의학 연구 팀은 어린 아이들과 운동 발달, 운동 발달이 사고의 진행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기 위해서, 움직임 교육이 뇌 구조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초기 발달 단계에 있는 아이들의 학습 과정 등의 연구에서 협업하며 더 나아가 무용이 교육적 담론에 포함되도록 다양한 연구지(무용 뿐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에 그들의 연구를 발표한다.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 가르치는 무용전문가들은 반성적 탐구활동과 연구를 예술과정 훈련 안에서 공연과 함께 교육 받는다. 평가 및 행동 연구는 궁극적으로 춤을 가르치는 데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연구 설계와 실행에서 연구자들 간의 협업은 보다 완전하고 생산적인 결과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연구된 정보 및 문서는 상호대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지역공동체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예술가, 사설학원, 지역사회와 가족, 행정 관리자와 정책 결정자, 세계문화, 유아 및 방과 후 활동, 고령자와 노인, 봉사활동 등의 연구를 가능하게 함으로서 공동체와 개인 그리고 정책과 자금의 연결 동기를 만들도록 한다.

## 5. 거버넌스의 기능과 책임

지난 20세기를 마감하면서 학계와 실무 계에서는 전통적인 정부역할과 시장논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지배 체제를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거버넌스(governance이다<sup>1)</sup>). 이는 전통적인 정부의 개념을 포함하면서 정부의 의미를 대신해주는 새로운 개념으로서, 특히 지식 정보화로 인한 사이버 공간의 확대로 인해 점차 행정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과 수평적 연계망을 구성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공공’을 창출한다는 시각을 갖는다. 그 동안 각 나라들은 사회·경제, 문화 등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며 단결력, 사회·경제 개혁, 신용, 빈곤퇴치조치, 실업대책, 그리고 사회 안전강(maximum safe intensity level) 등을 제공하는데 주력을 해왔는데, 미국이 대 공황기에 시행했던 문화 분야 뉴딜정책은 하나의 좋은 예시가 된다. 당시 미 재무부는 연방미술프로젝트(FAP)·연방음악프로젝트(FMP) 등을 통해 예술가 일자리 창출 사업을 펼쳤다. 농업 안정청은 사진작가·미술가 등 총 1만 명을 고용해 미국 전역의 공황사태를 기록하게 했고, 수많은 회화·조각·벽화 작품을 탄생시켰다. 정부지원으로 저렴해진 관료료 덕분에 대공황 당시 전체 미국인의 65%가 주 1회 이상 영화를 감상했고, 「서부전선 이상 없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명작들이 이 때 나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21C 고등교육을 받은 예술인들의 직업창출에 대한 시급한 문제들 역시 거버넌스 차원에서 검증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고등 무용교육의 지위와 안녕에 별로 관심을 쓰고 있다지 않다는 점이나 많은 무용 교수와 학생(졸업생)들도 무용교육의 시장성에 적극적으로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은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 예로 무용교사자격증에 관한 정당성을 거듭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자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그동안 대학 무용(학)과의 집단적 관심 또한 예술의 발전에 초점과 비중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교사양성과 그 지위 확보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지 못했음을 지적 할 수 있다. 이제 정부가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을 제정하고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를 실행하고 있지만 그것은 무용이 예술교육과정상 음악, 미술과의 형평성 문제해결에 근본적 대책이 될 수가 없다. 비록 이로 인해 무용이 예술기반 교육이라는 당연한 본질성을 되찾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학 무용(학)과 졸업생들에게 체육교사자격증이 나오는 문제, 그리고 이 외 무용분야의 생존과 미래에 대해 산재하고 있는 해결책들에 대해서는 정책관리 차원에서 상호 심각하게 논의되는 가운데 ‘원원 정책’

1) 최근에 행정을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보는 견해로서 해당분야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경제·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정 관리 체계를 의미하고, 지배보다는 경영의 뉘앙스 강하다.

을 여는 시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대학 무용(학)과는 무용에 관한 정책과 이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중에 교육학(다문화교육, 통합예술, 학제간 융합, 학생 수행과 성취, 위기에 처한 아이들), 교육정책(국가기준, 교사기준, 자격증, 관리, 재정) 등에 따른 책임과 성과를 위해 관심과 추진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설학원에서의 교육(어린이, 방과 후 활동, 성인과 노인)에 관한 정책 및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고, 무용 연구를 위한 지역 센터의 설립을 통해 무용관련 데이터베이스가 보존될 수 있도록 문서의 수집과 평가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워크숍과 세미나를 운영하며 무용분야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전문용어를 정의하고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두뇌 집단think tank” 분과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일들을 결정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용교육의 미래에 직접적 영향력을 미칠 지도력 갖춘 사람들이 있어야 하겠지만, 여기에 힘을 실어 주고 이런 노력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많은 인적·물적 자원과 전략들을 갖추고 이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거버넌스의 지원과 체제 속에서 차세대들의 이익 창출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를 실행하도록 강력하게 주장하며, 국가와 우리 아이들의 혜택을 위하여 공적, 사적 재정이 이러한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도록 적극적,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할 것이다(<http://www.ndeo.org>).

#### IV. 결론

공동의 이해를 형성하고 상대의 의식이나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소통의 핵심은 공감에 있다. 대학의 무용(학)과는 이제 학생, 사회, 시대와 소통하며 발전적 성과 창출에 도전해야 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진로와 직업으로의 연결이라는 책임과 실질적 학과자치의 실현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다. 대학 무용(학)과의 교육은 정신적 차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및 사회적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리더를 길러내어야 한다. 요즘 대학의 전통적 무용교육과정인 실기과목과 이론의 이원성의 대립관계의 해결로서 유럽·미국식 무용교육의 체제가 널리 보급되고 있다. 그것은 무용의 지식과 훈련의 기본철학이 문화 간 또는 세계적 조망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며 공연예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보급된 무용장르에 대해 동등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등 무용교육의 재구조화와 발전을 위해 살펴 본 결과 이것 아니면 저것을 골



라야만 한다는 잘못된 논쟁 즉, “예술가 대 교육자”라는 이분법적 인식을 버리고 무용(학)과 교육과정의 포괄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문 학위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교양 예술과정과 다양한 무용프로그램을 육성하고 유지시켜야 한다는 점과 무용교육 석·박사과정의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해당 교육부서 내에서 파트너십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연구기회의 확대를 위해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조성해야할 뿐 아니라 고등무용교육을 지지하는 조직과 파트너십을 갖고, 지역사회 예술네트워크, 지역사회 무용, 무용교사 협의회 등을 포함한 교육자들과 예술가들이 공동으로 연구하며 비판, 실천할 국가적이면서도 국제적인 연합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안한다.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는 희망은 오래되고도 늘 새로운 것이다. 특히 학생들에게 무용교육을 통해 불완전한 현실에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의 진보를 희망한다(교육문화연구회 역, 2003:5-6)는 더 큰 목적과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무용교육에 대한 학계 및 사회·경제적 오해 및 압박, 프로그램 간 동등한 자원 배분(학생 수, 수업단위시수, 환경시설 등)의 불균형 등이 개선될 때에 고등교육의 미래에 대한 안정성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김안나(2004), “영국 고등교육 재구조화의 동향과 발전 전략”, *비교교육연구* 제 14권 2호, 45-66.
- 김영옥(2007), “대학무용과의 교육과정과 취업에 대한 연구”, *舞踊學會論文集* Vol.5, 23-37.
- 신은경(2004), “21C 대학 무용교육과정을 위한 패러다임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15집 제 2호, 113-127.
- \_\_\_\_\_(2006), “고등교육에서의 무용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17집 제1호, 51-65.
- 신현석(2005), *한국의 고등교육 개혁정책*, 서울:학지사.
- \_\_\_\_\_(2007), “한국고등교육의 시장화와 다양화: 국가, 시장 그리고 대학의 관점에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 Vol, No 4, 285-314.
- Birnbaum, R.(1983), *Maintaining diversity in higher educ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Bok, D.(2003), *Universities in the marketplace: The commerci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ohen, P.(2002), “Partnership potential between private dance schools and dance programs in higher education: Connections and disconnections”, *Journal of Dance Education* 2(2).
- Daichendt. G. J.(2009), “Redefining the artist-teacher”, *Journal of Art Education*, 62(5), 33-38.

- Eddy, M.(2009), "The role of dance in violence-prevention programs for youth", *In Dance: Current selected research*, Vol. 7, ed. L. Overby and B. Lepczyk., Brooklyn, NY:AMS Press, 93-143.
- Green, J.(2000), "Power, service and reflexivity in a community dance project.", *Research in Dance Education* 1(1), 53-67.
- Hagood, T.(2000), *A history of dance in American higher education: Dance and the American university*, Lewiston, NY: Edwin Mellen Press.
- Houston, S.(2005), "Changing Lives? Ethics in Community Dance Practice", *International Dance Conference Preceeding*, 59.
- Kerr-Berry, J(2007), "Dance educator as dancer and artist", *Journal of Dance Education* 7 (1) 5-6.
- Paulo F.(1993), 교육문화연구회(역, 2003), **플레이리의 교사론**, 서울:아침이슬.
- Penelope H.(1986), *On the Nature of Art Making in Dance: An Artistic Process Skills Model for the Teaching of Choreography*, Ohio State University.
- Reckmeyer, W. J.(1990), "Paradigms and Progress: Integrating Knowledge and Educ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 *In Rethinking the Curriculum*, 53-64.
- Risner, D.(2007), "Current challenges for K-12 dance education and development: Perspectives from higher education", *Arts Education Policy Review* 108 (4), 17-23.
- \_\_\_\_\_(2010), "Dance Education Matters: Rebuilding Postsecondary Dance Education for Twenty-First Century Relevance and Resonance". *Journal of Dance Education* 10(4), 95-110.
- Zemsky, R., Wegner, G. R., and Massy, W. F.(2005), *Remaking the American university: Market-smart and mission-centered*.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http://www.ndeo.org>